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

김동환*

I. 서론

1930년대 후기에 카프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는 그 시기가 갖는 사상사적, 정신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다각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밀도있게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비평사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논의¹⁾, 소설사적인 측면에서의 논의²⁾, 작가론의 한 부분으로서의 논의³⁾ 등으로 대별된다. 첫째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작품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장편소설론의 한 갈래로서의 풍속소설론을 다룸으로써 이들 작품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이 된다. 30년대 후기의 소설들에 대한 관심이 비평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두번째의 경우는 이들 작품을 가족사, 현대기 소설이라는 항목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주형의 논문은 30년대 장편소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우한용의 논문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풍속’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번째

* 박사과정

- 1)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강영주, 1930년대 소설론고, 서울대 석사논문, 1976.
 채호석, 김남천 창작방법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 2)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3.
 우한용, 한국 현대소설 구조연구, 삼지원, 1990.
- 3) 문영진, 김남천의 해방전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권일경, 이기영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장상길, 한설야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0.

의 경우는 작가론의 특성상 이들 작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각 작가들의 여타의 작품들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 논의들을 보면 각 유형별로 상당한 시각차가 노출되는데 이 차이는 경향문학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와도 무관하지 않다. 30년대 후기의 장편소설을 전향기 이후의 경향성 퇴조에 따른 공백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방법론으로서의 소설론의 모색과 그에 의한 창작의 결과로 보는 일종의 부정적 견해나 앞단계의 문학사의 전개과정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양식과 구조의 측면에서 궁정적으로 보려는 견해의 차이는 그 좋은 예이다. 본고에서는 기존논의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수용하되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 이들 작품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30년대 후반기는 전반기에 이어 심화된 창작방법론의 계속됨과 동시에 창작과 창작방법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보완작용을 함으로써 문학활동이 긴장감을 동반하며 이루어진 시기이다. 식민지 시대 말기의 경향문학이 가중되는 일제의 문화탄압에도 불구하고 비록 전대에 비해 그 경향성을 현저히 상실하기는 했지만 패배주의에 기울지 않고 계속적인 방향모색을 시도할 수 있었던데는 두 영역의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물론 이전 단계에서도 창작과 창작방법의 관계가 카프 소속 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문학의 본질적인 속성상 그 중심영역이 창작방법론이었음⁴⁾을 고려하면 30년대 후반기의 두 영역의 관계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의 문학활동이 지향했던 방향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따라 오류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그 평가의 근거가 특정 부문에 국한된 한계가 있을 경우 설득력이 약하게 된다. 문학연구의 목적이 대상작품이 당대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밝혀내는 것이라는 당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평가가 고정화되고 편향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이 점에 대해서는 유흥선, 1930년대 창작방법논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참조.

본고는 30년대 후기 카프작가들의 일련의 장편소설들——한설야의 「탑」, 이기영의 「봄」, 김남천의 「대하」——을 카프의 해산 이후 이들 작가들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한 작품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모색의 요체가 '풍속'의 탐구에 있다고 보는데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필자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낱 삽화적인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풍속'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자 하는 테는 카프의 중심인물이었던 이들 세 작가의 작품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되었고⁵⁾ 개화기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로서 인물의 성장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풍속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당시 경향문학의 주요한 흐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30년대 후기 경향문학의 중심법주를 전향론의 여파와 창작방법론의 변모라는 두 축으로 삼정하고 고찰한 연후에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풍속의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의 내적 형식 결정 요인

1930년대 후기 문단은 카프 제 1, 2차 검거 사건과 카프의 해산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게 된다. 프로문학운동의 발생 이후 구심적 역할을 해 온 카프의 해체는 그동안 카프 내의 제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조직론의 중요성을 떠나서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일제의 지속적인 탄압에 의해 사회 각부문의 운동이 약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소속 작가들에게 최소한도의 연대감을 심어줄 수 있었던 기반인 카프의

5) 참고로 세 작품의 서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남천, 〈대하〉, 인문사, 1939 (인문사 기획, 전작장편소설총서 제 1권).

이기영, 〈봄〉, 「동아일보」 1940. 6. 11~8. 10.

「인문평론」 1940. 10~41. 2.

_____, 〈봄〉, 대동출판사, 1942 (위 연재분에 추가분을 포함)

한설야, 〈탑〉, 「매일신보」 1940. 2. 4~1941. 8. 20.

_____, 〈탑〉, 매일신보사, 1942.

서지사항으로 볼 때 이들 작품은 39년과 40년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이 시기를 30년대 후반으로 보는 것은 본고에서 30년대 후반을 단순한 역사적 시간으로 보지 않고 정신사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이다.

해체가 1, 2차 검거사건으로 신념의 동요를 보이고 있던 작가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커울 것으로 보인다. 35년 12월을 전후해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들 작가들 중 대부분은 경향문학을 포기하게 되고 몇몇 중심작가들만이 새로운 방향모색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전향론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과 새로운 창작방법론의 확립으로 귀결된다.

1. 전향론에의 대응 방법

전향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강제에 의해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때 문제시 되는 것은 사상의 포기가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이든 자기 자신의 의사표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는 실제 매우 미묘한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잠시 검토해 보자. 1930년대 한국 사상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전향의 본질은 일본의 경우와 분리시켜 파악할 수 없는 바 일본에서의 전향표명은 대외적인 전향선언문의 발표나 당국에 자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간접적인 매체로 자발적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佐野・鍋山의 옥중 전향선언, 자인서를 쓰고 보석출감한 中野重治, 林房雄・徳永直 등의 논문을 통한 전향의 시인 등은 그 각각의 예에 해당한다.⁶⁾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대외적인 전향표명은 전무하고⁷⁾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합법이며 자신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⁸⁾ 치안당국에 의해 전향자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한 방편으로 여겨지는데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6) 思想の科學研究會 編, 共同研究 轉向 上, 下, 平凡社, 1960.

中道説, 轉向論 序說, ミネルウバ書房, 1980.

7) 다음 글에 의하면 당시 사상법 중 몇 사람이 옥중에서 전향선언문을 발표, 전향을 공표한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 볼 수 없다. 정삼봉, “전선전향자대회방청기”, 사해공론, 1938. 9.

8) ‘나는 시인이며 시인은 꿈을 사랑한다. 고로 나는 꿈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선택했다.’는 백철의 논리는 그 좋은 예이다.

김남천, 방청기, 조선중앙일보, 1935. 10. 29~31.

전향자로 ‘공인’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⁹⁾

자신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아닌 제도에 의해 전향자로 공인받게 된 카프 작가들은 전향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전향을 표명하지 않은 이상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한 채 글쓰기에 전념하게 된다. 그런데 이 창작의 문제를 그들이 작가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 단계의 그들의 삶의 방식과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는 30년대 후반기 문학을 보는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 두가지 물음은 단체적인 차이만 있을 뿐 하나의 물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물음은 생리적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 당대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문제의식도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후자의 물음과 변별된다. 흔히 전향소설로 내용규정되는 이들 작가들의 출옥 직후의 작품들을 분석함에 있어 주인공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에 복귀하고 현실과 다시 대결하게 되는가를 살피는 작업에 초점이 놓이는 것은 후자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¹⁰⁾

카프 문인들 중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 등의 전향소설에서 ‘가족’의 빌견을 통해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논리를 확보하는 부분은 그들이 전향론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일차적 방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록 공식적인 전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향자로 공인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철저한 자기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연성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얻어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의 재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변혁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현실은 그들에게 여전히 거대한 벽으로서만 남아 있었고 그런 현실에 의해 결국은 패배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로서는 현실의 힘과 자신들의 미미한 역량에 대해 냉철한 재인식의 과정을 거쳐야 함은 필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들이 과거 자신들이 가졌던 문학관을 버리고 글쓰기

9)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좋고, 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pp.9-12 참조.

10) 좋고, 1930년대 한국전향소설연구, 1987.

김윤식, 1930년대 후반기 카프문인들의 전향유형분석, 한국학보, 1990, 여름

자체에 만족한다면 그들의 작품에서 삶에 대한 고민의 방식이나 자존심 회복의 문제 그리고 생활에의 복귀에 대한 강렬한 욕구 등이 드러날 여지가 없다. 전향자가 법에 충실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상적 삶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고뇌의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에서 문학운동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비록 권력의 강제에 의해 사상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고통마저도 단시간에 외면하고 일상으로 빠져든다면 문인으로서의 그의 모랄감각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카포문인들이 '가족'의 발견을 통해 생활에 복귀하고 현실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된 연유에는 가족이 가지는 의미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자전적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대부분은 운동에 관여하고 있을 당시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창 활동에 열심일 때에는 그까짓 가족 정도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시하고 있었지만 영어의 몸이 되고 전향자로 출옥한 후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대했던 대중들은 어떤 실체로도 남아있지 않고 가족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자 이제는 가족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은 우리들이 대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과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그들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이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전향소설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지만 이후의 소설들에서 가족사 소설 내지 낌대기 소설을 통해 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동기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가족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서 재출발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은 매우 단단한 논리로 전향론에 대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 풍속소설론의 위상

1930년대 후기의 문단의 관심은 현저하게 장편소설 장르로 집중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소설론의 촛점이 기법론보다 본질론 쪽으로 점근해 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화와 김남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30년대 소설론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깊이있게 다루어져 왔는데 대체적으로 당대 논자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여 범주화시키고 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 본고에서는 이들 논의들을 전제적으로 살피는 것을 피하고 그 중 풍속소설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김윤식 교수는 김남천의 풍속소설론을 로만개조론의 실패의 부산물로 보고 있는데 소재의 문제 제기, 환경과 개성의 불일치에 의한 환경 쪽으로의 경도 등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때의 풍속의 의미는 풍속이 모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희망과 풍속 묘사가 '전형적 정황'을 창조 할 수 있다는 희망 즉, 전망의 불투명함을 세태관찰로 극복하려 한데 있다고 보는데서 찾을 수 있다.¹²⁾ 강영주는 김남천의 풍속소설론이 19세기 서구의 고전소설들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가족사, 연대기 소설과는 다른 계열의 소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원리의 수립 부족, 모랄과 풍속의 연결 허술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³⁾ 채호석은 김남천의 창작방법론에 있어서 풍속은 현실의 정확한 인식 및 생생함을 획득하기 위한 방식이었지만 풍속 논의는 현실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¹⁴⁾ 이에 비해 우한용은 풍속이 세계관을 드러내는 중간항의 역할을 하며 개인이 풍속에 대해 동화하느냐 그것을 조절하느냐에 따라 인물의 사회적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¹⁵⁾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 본 풍속소설론에 대한 논의들은 김남천이 제시한 내용을 각자의 관점에 의해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이끌어낸, 대체로 정당한 평가라 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 풍속의 문제를 창작과 관련시켜 볼 때 당대의 제 논의중 가장 의미있는 부분이라 보고자 한다.

11)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강영주, 1930년대 소설론고, 서울대 석사논문, 1976.

최유찬, 1930년대 한국 리얼리즘론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6.

채호석, 김남천 창작방법론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민경희, 임화의 소설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0.

신두원, 임화의 현실주의론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1.

12) 김윤식, 앞의 책, pp. 463-467.

13) 강영주, 앞의 글, pp. 21-22.

14) 채호석, 앞의 글, p. 53.

15) 우한용, 앞의 책, pp. 464-493.

필자는 30년대 후기의 소설론들을 궁극적으로 전당이 없는 시대에서의 최소한의 전망을 확보해 보려는 노력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소설의 본질에 내포되어 있는 유토피아 지향성을 추구하려는 의식의 소산이라 본다. 이런 의미에서 임화, 김남천의 소설론의 변모 내지 다양성은 그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모색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제시한 제 소설론 중 실제 창작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실제 창작과 관련없이 리얼리즘론에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독자적 의미를 가지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년대 후기가 가지는 제 특성을 고려할 때 논의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어떠한 형태이든 전향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고 그에 따라 현실을 재인식해야 했던 그들이 다시금 다분히 현실을 떠나 있는 관념에 더 가까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자기 합리화나 현실도피라 할 수 있다. 이 전단계의 경향소설들이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인물이나 상황설정의 작위성 내지는 이론추수성으로 인해 형상화에 실패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현실에 정당하게 기초를 두지 못한 이론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는 카프 작가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30년대 소설론 중 창작과의 연계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풍속소설론을 들고자 하는 것은 풍속이 그 속성상 다른 요소들에 비해 현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로서 풍속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자체를 과거 지향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으로 보느냐 하는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두 관점 모두 풍속의 역사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전자의 경우 풍속은 그 자체가 과거적이며 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김남천의 지적대로 ‘사회적 습관으로서의 제도’와 ‘제도의 습득감’을 함께 지칭하며 ‘사회의 생활기구에 기초한 인간생활의 각종 양식’¹⁶⁾이라는 속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풍속이 지니는 이러한 속성은 풍속묘사가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인식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풍속이

16) 김남천, “현대조선소설의 이념”, 조선작품연감, 1939, p. 267.

존재했던 시대가 루카치가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유토피아¹⁷⁾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풍속을 미래 지향적으로 보는 바흐친의 경우는 소설의 한 형식으로서의 크로노토프의 대표적 유형으로 라블레의 작품에 등장하는 민속적 시간형식을 분석하고 있다. 바흐친은 계급사회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생겨난 제반 儀式——세시풍속이나 노동의식——에서 드러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이고 생산적 성장의 시간이미 최대한으로 미래지향적인 시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삶의 양식들은 철저히 역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풍속과 인물이 결합되어 있는 소설에서 인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장하고 있는가를 인간생활의 각종 양식의 발현체인 풍속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 내는 일이야 말로 체험을 통한 총체적 역사인식의 가장 기본적 형태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축면과 함께 30년대 소설론에서 풍속소설의 의미를 제고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그것이 가족사, 년대기 소설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절에서 필자는 카프 문인들이 생활에 복귀하고 현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가족’의 발견으로 보았다. 사회구성의 가장 원초적 단위인 ‘가족’으로 부터도 외연을 당한 상태에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한 노력이 현실의 힘에 부딪혀 좌절하고 난 뒤 다시 돌아온 가정은 자신의 논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제일의 문제로 다가서게 된다. 진보적인 성향을 띤 이데올로기 집단에서 이해하는 ‘가족’을 포함한 전통은 무기력하고 유물화된 파편으로 기껏해야 ‘종종 사회 속에서 어떤 특정한 헤게모니적 전개에 의해 좌초해 버린 집단들에 후퇴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¹⁹⁾ 그러나 30년대 한국의 전향자들이 전향 후 맞이하는 가족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현실과 대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들은 우선적으로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필연적으로 유

17) G. Lukács(반성원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pp. 107-120.

18) M.M. Bakhtin(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pp. 408-429.

19) R. Williams (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2), pp. 145-146.

년기로 돌아가게 된다. 유년기 시절 부와의 갈등, 조혼으로 인한 자신의 갈등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데서 가족을 도외시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모랄감각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30년대 풍속소설론이 가족사, 년대기 소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III. 작품에 나타나는 풍속의 양상과 의미

1. 家族內的 교양소설과 풍속의 연관성

〈대학〉, 〈봄〉, 〈탑〉은 한가족의 여러 대에 걸친 역사를 기술하는 가족사 소설형식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서술의 촛점이 한 인물의 성장과정 및 교육과정에 집중되는 교양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공통적이다. 교양소설은 한 개인이 사회 공동체의 이념을 습득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형식으로 사회적 삶의 모든 형식을 인간공동체의 필수불가결한 형식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고독했고 또 자기자신 속에서만 폐쇄, 침거하고 있던 인물들이 서로서로 마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정, 적응시키는 공동체적 체험을 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⁰⁾ 루카치의 독특한 역사철학적 관점에 의해 소설의 한 형식으로 유형화되고 있는 교양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본 논의의 성격상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위 세 작품을 교양소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기되는 두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대학〉, 〈봄〉, 〈탑〉 등은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사 소설 형식과 교양소설의 성격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가족사 소설이 대체적으로 삼대 이상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성을 주축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세 작품은 부자 관계가 중심이 되는 제한적 시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양소설이 인물의 성장과정에서의 시간의 체험을 통한 총체성의 인식을 목표로 그려지며 외부세계와 내면성의 조화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작품은 가족 내적인 관계를 중심 범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별성은 루카치

20) G. Lukács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pp.177-178.

의 지적대로 서사시를 지향하는 소설의 과제가 제기되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그리 문제적이지 못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소설들이 쓰여진 시기는 현실파의 적극적인 관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양 소설의 본질적 속성인 추상적 이상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소설들이 가족 내적인 관계 속에서 인물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점이다.

교양소설에 등장하는 인간유형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또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상은 사회적 관계와 성취의 여러 구조 속에서 영혼의 가장 내면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과 목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적이고도 내면적인 공동체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인간들 상호간에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무엇인가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특수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단순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고대의 서사시에서 보는 것처럼 친족관계라는 자연적 유대관계에 의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²¹⁾ 그러나 본고의 대상이 되는 30년대 후기의 장편소설들은 인물이 관계하는 외부세계가 가족의 태두리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시기의 소설들이 ‘가족’이라는 법주를 그 출발로 삼을 수 밖에 없었던 정신사적 기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 소설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신들의 삶과 성장의 계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공동체적 체험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그 실체를 이들 소설들이 비중있게 그려내고 있는 풍속에서 찾고자 한다. 열려진 시대가 아니고 철저히 닫혀진 시대에서 ‘가족’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현실을 향해 쉽사리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삶의 모든 형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풍속을 통해서이다. 풍속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실제 작품을 검토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김남천이 풍속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포착할 수 있고 사회와 인물을 발생과 성장과 소멸에서, 다시 말하면 전체적 발전에서 묘출할 수 있다는

21) 앞의 책, p.177.

논지²²⁾를 보이고 있는 것은 풍속을 전체성 개념과 동일시 하는 무리함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시사적이다.

2. 선택적 묘사로서의 풍속의 기능과 의미

1) 禁忌體系로서의 풍속

금기체계로서의 풍속은 일종의 도식적 성격을 나타낸다. 풍속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성질을 띠는 것이다. 개인이 어떤 의미있는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외적인 금기체계에 따라 그 행동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한 행동방향의 조정은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금기체계로부터 주어지는 도식에 따라 외적인 사물을 받아들일 때 동화(assimilation)라 한다. 그러나 외적인 사물이 그 속성때문에 도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할 때는 도식자체를 수정하게 되는데 환원하면 외적 사물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조절(accommodation)이라 하는데 동화와 조절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삼는 것은 평형상태이다. 풍속에 대해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이 대응하는 방식도 그 구조에 있어서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풍속에 대해 동화와 조절의 역동적 작용을 수행하면서 주체와 환경의 평형을 지향하기 때문이다.²³⁾

금기체계로서의 풍속에 대한 개인의 대응양상이 지니는 일반적 속성과는 달리 〈대학〉, 〈봄〉, 〈탑〉에서는 그 대응양상이 일탈(devi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 누대에 걸쳐 구성원들의 의식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놓여있던 관습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물의 성장과정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간과 사회의 총체성은 문화 또는 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은 취하든 간에 그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부정적인 한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 상징적이나마 그 실체를 최소한도로라도 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세 작품에 나타나는 삽발이나 단발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의관이란 예절의 근본이요 생명과 같이 중한 것인데 무언하게 상놈의 자식들이 양반이 쓴 관을 가지고 장난을 친대서야 아무리 세상이 망해 가기로 그럴 법

22) 김남천, 앞의 글

23) 우한용, 앞의 책, pp. 468-469.

이 있느냐고, 그런 학교에는 절대로 자녀들을 못 보내겠다는 것이었다.²⁴⁾

이 봉건제도의 유물인 머리꼬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놀림감이 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하나 어떠한 시대나 판국이 전환되는 때에는 묵은 것은 으레 새것에게 부경을 당하는 법이다. 그것은 새시대의 싹(芽)이었다. 이 싹을 먼저 트게 하는 사람을 선작자라 하지 않는가.²⁵⁾

인용한 부분은 이기영의 〈봄〉 중 삭발에 관한 부분으로 앞 부분이 삭발을 반대하는 소위 양반계층의 의식이라면 뒷 부분은 '새시대에 맞게' 삭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화된 인물들의 의식이다. 양반계층이 시대의 변화를 망해가는 것으로 보는 반면 개화된 인물들은 새시대의 도래라고 보고 있어 극명한 관점의 차이를 노출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투로 상징되는 유물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새시대를 맞는 의지를 내보이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식은 풍속으로부터의 일탈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의식들은 성인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에 그 내포적 의미가 축소될 수 도 있지만 삭발을 하는 당사자들이 어린 학생들이 삭발 후의 자신들의 모습을 좀더 자랑스럽고 어른스럽다고 느낀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이든 풍속 또는 제도로부터의 일탈이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화 되고 있는 단계에서의 중요한 의식의 변화과정임을 말해주고 있다. 〈탑〉의 경우도 〈봄〉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삭발의 동기가 좀더 적극적이다.

여태껏 형걸이가 몇번이나 머리를 깎을려고 할때마다 관례를 지내는 것을 본 뒤에야 깎는다고 한사코 말려온 것을 오늘 아침 이렇게 깎아 버렸으니 그의 삭발과 형선이의 혼례식과를 맞붙여서 생각할 것은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기필코 형선이가 장가드는 것에 불만하여 삭발을 해버린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형걸이 자신도 어머니의 심경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가슴에 솟구쳐 오르는 지향없는 울분을 또한 어떻게 처치할 길이 없었다. 그 울분을 억눌러서 삭발로 인도해 놓은 것이지만 지극히 온당한 행동이었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²⁶⁾

24) 이기영, 봄, (대동출판사, 1942), p.331.

25) 앞의 책, p.332.

26) 김남천, 대학, (인문사, 1939), pp.90-92.

〈봄〉에서는 삭발을 하게되는 동기가 성인들의 유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대학〉에서는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작품에 나타나는 삭발의 의미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대학〉의 형결이가 자신이 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울분을 억제하지 못해 삭발을 단행했음은 또 다른 체계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대학〉에 나타나는 풍속의 묘사가 다른 두 소설에 비해 훨씬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무게에 있어서는 두 소설을 놓가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이 항목을 검토하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금기체계로서의 풍속으로부터의 일탈의 대표적 행동양식인 삭발이나 단발이 학교라는 제도의 힘을 빌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힘이 아직은 개인의 의지보다는 우위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힘을 빌어야 일탈이 가능한 것은 타기되어야 할 풍속이라 할지라도 전단계의 의식으로 보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범이자 제도로서 수많은 시간동안 사회 구성원들을 규제해 왔던 만큼 그와 맞먹는 힘을 가진 실체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의지로도 충분히 맞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과 대립하려는 행위의 필연성과 중요성은 그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기체계로서의 풍속은 제도와 대립하는 실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공동체 이념의 구현으로서의 풍속

〈대학〉, 〈봄〉, 〈탑〉 등에는 마을의 풍속과 관혼상제가 매우 정치하게 그려져 있다. 세시풍속으로 대표되는 마을의 풍속은 〈대학〉의 형결, 〈봄〉의 석립, 〈탑〉의 우길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아름답게 채색되어 나타난다. 마을의 축제란 공식문화와 대별되는 비공식문화, 민중문화 창조의 공간이다. 이 시간과 공간에서는 공식문화에 의해 고정된 모든 관념들이 변화와 개신으로 변하게 된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민중이 평소 가슴 속에만 지니고 있던 이상향에의 열망을 현실로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서 단오제 중 형결의 기생 부용과의 사랑을 이루고 단오의 모습을 지켜보던 형결의 아버지마저 잃어버린 깊은 시절에 대해 애틋한 그리움을 일깨우는 것은 축제의 성격상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

다. 마을 풍속의 묘사는 <탑>에서 훨씬 폭넓고 다양하게 드러난다. 여름철 씨름, 동제인 '예신', 널뛰기, 배뱅이굿 놀이, 덕담노래, 정월 아녀자들의 풍속, 오리날의 불놀이, 색시들의 이야기 등이 우길의 '어린 영혼' 속에 깊숙히 자리잡은 채 묘사되고 있다. <봄>에는 추석 풍속과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마을 풍속에 대한 묘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측면. 이들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개화기의 농촌은 문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금광으로 대표되는 물질문명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가는 <봄>의 방깨울이나, 이전까지는 구경도 못했던 각종 잡화들을 판매하는 상점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들에 밀려 예전의 경취를 잃어가고 몰락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대학>의 성천, 노일전쟁을 경험하면서 마을 전체가 괴폐해 져가는 <탑>의 나군터 등은 이미 예전의 농촌이 아니다. 자족적인 단위였던 마을에 외부의 영향이 밀어닥치면서 마을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 그는 열사흘 대목장을 보고나서 자기네 동리에서도 소 한마리를 따로 잡기로 하였다. 그것은 아랫말 금점꾼들에게 지기 싫은 생각이 은연 중 생겼던 까닭이다. 신혈판에서는 금점꾼들이 추석놀이를 굉장히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럼 우리도 해보자. 아무리 시대가 변해졌다가도 금점꾼들에게 져서야 될 말이냐고, 저희가 소를 잡으면 우리도 잡겠다는 대항심이 치밀었다.²⁷⁾

<봄>에서 금점꾼들에 의해 마을의 경제 및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에 대한 위기의식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그들 못지 않게 성대히 보내고자 하는 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극복양식은 <탑>에서도 드러나는데 노일전쟁 당시 마을에 들어 온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부녀자들이 성적 폭행을 당한 이후 홍홍하게 떠들던 온갖 소문들이 오리날의 불쌈이라는 마을 전체의 놀이를 통해 진정되어 가는 것이 그 예이다.²⁸⁾ 즉 개화기라는 시간적 배경과 관련되는 풍속은 시대적 변화에 의해 해체되어 가는 농촌을 방어하고 유지해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의 표출양식이라 볼 수 있다. 놀이를 주로하는 풍속을 지속함으로써 놀이의

27) 이기영, 봄, p. 201.

생명인 공동체 의식을 발현시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의식성장과 관련된 측면.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고 양반의 지위에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어린 시절의 그들이 접하는 인간관계는 대개 자기들보다 신분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일방적인 상하관계가 주종을 이룬다. 제한된 인간관계를 유지하던 이들이 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 또 다른 인간들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세시풍속을 통해서이다. 양반이라는 점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부모이지만 명절이나 잔치가 있을 때는 둑인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풍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찰자로 남아있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벌이는 풍속을 통해 그들의 삶의 방식, 감정 등을 체득하면서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풍속은 인간 관계 형성의 기초이자 현실의 법칙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풍속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동체의 이념을 습득하게 된다.²⁹⁾

세째, 개인과 사회의 연결관계로서의 측면. 세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주요 인물의 결혼식 모습이 매우 세밀하고 비중있게 그려지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타의 풍속의 서술과는 달리 결혼식 광경은 그 시작단계에서부터 끝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이 해당 작가들의 이전 단계의 작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치밀한 묘사를 통해 서술되고 있다. 결혼식에 관한 작가들의 지대한 관심은 결혼과 결혼을 통한 자손의 출생

28) 한설야, 탑, (매일신보사, 1942), pp. 193-204.

29) 물론 풍속이 이러한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들 소설의 주인공들은 유년기에 從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하>에서 형결과 쌍네의 사랑, <봉>에서 셔림이 옥매에게 느끼는 동전, <탑>에서 우길과 계섬의 우정이 그에 해당한다. 종과 상전은 계급적 대립이 가장 심화되어야 할 관계임에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 주인공들의 아직 훼손되지 않은 유년기의 순수성에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탑>의 우길이는 계섬의 죽음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게 되는데 계섬의 죽음의 근본적 계기가 풍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다 참여하는 마을의 잔치(풍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계섬의 소외감은 주인집에 대한 적대감으로 증폭되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상제와의 관계로 전화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풍속의 한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

등이 개인적 삶과 사회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는 '내적 연결관계'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바흐친의 견해³⁰⁾를 참고로 할 때 그 내재적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인물의 성장과정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의미는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개인의 사회화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각 개인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은 도덕적 관점(풍속의 어원을 Mores에서 찾는 관점)과는 별개로 풍속의 사회성을 말해주고 있다. 「탑」의 우길이가 형의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자신도 어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과정³¹⁾이나 「대하」의 형걸이가 형선의 결혼식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과정³²⁾은 모두 직접, 간접적으로 결혼이라는 풍속이 주는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시대적인 측면에서나 개인의 의식성장의 한 계기로서,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연결관계로서의 측면 그 어느 쪽에서든 공동체의 이념의 발현으로서의 풍속이 30년대 장편소설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개화기의 풍속이 대체 현실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카프카 해산되고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던 문인들이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삼았음은 Ⅱ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자신들이 변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현실의 힘에 의해 좌절을 겪은 그들로서는 자신들에게 가능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아직 고착되지 않은 세계, 현재의 현실과 대체될 수 있는 세계를 찾는 일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벌써 훠손되어 가고 있는 개화기이지만 유년기에 경험한 풍속을 통해 드러나는 공동체는 바로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³³⁾ 그래서 필자는 이 소설들에 등장하는

30) Bakhtin, 앞의 책, pp. 417-419.

풍속의 역사를 性의 역사로 보고 性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역사적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는 E. Fuchs의 견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E. Fuchs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 I-II, 까치, 1988.

31) 「탑」 pp. 118-171.

32) 「대하」 pp. 21-74.

33) 〈봄〉에서, 추석을 계기로 마을로 밀려 들어 온 온갖 문명의 이야기와 새로

인물들이 바로 (시기적으로는 선후가 바뀌었지만)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에 걸쳐 발표된 경향소설의 주인공의 유년기의 모습이라고 보고자 한다.

IV. 결 론

이상에서 본고는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인 「봄」, 「탑」, 「대학」에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전향론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제기된 다양한 창작방법론들 중에서 창작과의 연결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논의로서 풍속소설론을 설정한 것은 '풍속'이라는 개념이 지닌 속성을 고려한데 있다. 풍속 자체가 과거 지향적이며 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습관으로서의 제도'와 그 습득감을 지칭하는 동시에 '사회의 생활구조에 기초한 인간생활의 각종 양식'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인식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상 작품에서 '풍속'이 내적 형식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요소로 남아있거나 구조 속에 융합되지 못한 채 묘사의 대상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주제 자체가 저연적인 문제제기로 남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행시킨 것은 30년대 후반의 소설들에서 풍속이 차지하는 무게때문이다. 현실의 변혁을 문학운동의 주된 목표로 삼았던 작가들이 오히려 현실의 두터운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난 뒤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냉철하게 재인식하는 일이 일차적인 과제였기에 당대 현실의 제모순이 배태되기 시작한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현실의 제반 법칙과 논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대두되었으리라 본다. 과거의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과거 사회의 삶의 양식의 집약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풍속을 검토하는 일이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본고의 기본입장이다.

소설 속에 묘사된 풍속 자체는 분석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매개적 의

윤 문화를 보면 서울을 동경하게 된 석립이가 가출을 하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가출'은 〈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풍속이 본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풍속의 체험은 한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공동체적 체험의 원초적 형태라는 속성이 1930년대 후반이라는 상황과 맞물리게 될 때 그 의미는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전향론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확보된 가족사 소설 형식의 교양소설로 볼 수 있는 〈대하〉, 〈봄〉, 〈탑〉 등에 나타나는 풍속은 지금까지 한 사회를 유지해 온 일종의 금기체계로서의 기능과 공동체 이념의 구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을 통해 개인의 의식 성장의 계기가 주어지게 되며 후자의 경우 공동체 이념의 습득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풍속의 의미는 각각 ‘제도에 대립하는 실체’ ‘대체현실’로 규정될 수 있다. 본고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도식성과 추상성은 앞으로 대상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자리에서 보완해 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남천, 대하, 인문사, 1939.
 이기영, 봄, 대동출판사, 1940.
 한설야, 탑, 매일신보사, 1942.
 강영주, 1930년대 소설론고, 서울대 석사논문, 1976.
 김동환, 1930년대 한국 전향소설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_____,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우한용, 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 삼지원, 1990.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3.
 유문선, 1930년대 창작방법논쟁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채호석, 김남천 창작방법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思想の科學研究會 編, 共同研究 轉向上・下, 平凡社, 1960.
 G. Lukács(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M. Bakhtin (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